# 금호타이어, 대체인력 350여명 투입…공급물량 맞추기 총력

노조, 출정식…평택·광주·곡성공장 3000명 파업 참여 사측 "공급 차질 최소화 위해 최선…빠른 시일내 정상화"

금호타이어 노조가 17일 결국 전면 파업 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구 조개선) 졸업 후 맞는 3번째 파업이자 첫 전면 파업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일시금 지급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노사간 견해차 가 커 파업 장기화와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이날 오전 6시 30분 광주·평택공장, 오전 7시 곡성공장에서 조별로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에는 생산직 근로자 3300여명 가운데 방 위산업체요원과 필수요원을 제외한 3000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오전 9시 광주공장에서 파업 출 정식을 열었다. 사측은 관리자와 일반직 근로자 등 350여명을 투입,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 사측은 아직까지 생산라인 가동이 원활하게 이뤄 지고 있으며, 완성차용 타이어를 주로생 산하는 평택공장은 자동화 공정으로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워크아웃으로 대폭 삭감된 급여와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어 떻게 할 것인지 등이다. 파업 타결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사측은 그동안 16차례의 임금협상 교섭 에서 기존 일당 정액 970원 인상에서 1900 원 인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원 지급 및 법적 기준보다 1 년 늘어난 만 61세 정년 연장 등을 최종안 으로 새롭게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조건없는 일시금 지급과 임 금 8.3% 정률 인상, 2014년 경영성과금 배 분, 기피직무 수당 지급, 1958년생 정년 연 장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피크 제를 배제하면 다른 사항은 협의 가능하 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에 대해 "임금피 크제는 회사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조가 요



금호타이어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17일 광주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출정식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구한 일시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라 며 "노조가 제기하는 '임금피크제 추후 논 의'를 받아들일 수는 있으나 무조건 일시

금 지급은 어렵고 연말 성과를 놓고 논의 해야 한다"며 의견 차를 보였다. 사측은 이번 전면 파업으로 하루 약 52억원의 매 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에

도 타이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타이어 공급 차 질을 막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재고를 미리 확보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생산 가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완성차(OE) 및 시장의 필요 물 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완성차용 타이어를 주로 생 산하는 평택공장의 경우에는 자동화 공정 을 통해 100% 정상 가동 중에 있어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인한 완성차용 타이어 공급 물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국 내외 거래처의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 록 하기 위해 재고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 치를 취하고 있다"며 "파업기간 중에도 노조를 최대한 설득해서 이른 시일 내에 생산이 100%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은행은 17일 광주 남구 빛고을건강타운에서 김한 광주은행장과 윤장현 광주시 장, 장병완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전용라운지 개점 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은행, 어르신 전용 라운지 개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17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빛고을건강타운에서 '어르신 전용라운지' 개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개점한 '어르신전 용라운지'는 광주지역 어르신들이 주이용 대상이다.

광주은행은 특히 이 '어르신전용라운 지'에서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창구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 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비스 혜택 대상은 만 65세 이상 개인 고객이며, 이들 고객에게 창구송금수수 료, 자동화기기이용 수수료, 제 증명서발 급 수수료, 사고신고 수수료, 증서재발급 수수료 등을 전액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용 라운지에 방문해 정기예금을 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0.6%의 우대금리 를 포함 2.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롯데 '형제의 난' 차남 압승

### 신동빈, 주총 승리 원톱체제로…지배구조 개선 기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의 핵심 지배 고 리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신동빈<사 진> 롯데그룹 회장을 지지했다.

17일 오전 9시 30분께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데이코쿠(帝國)호텔 에서 시작된 롯데홀딩스 임시 주총은 불 과 30분 만에 끝났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상정한 사외이사 선임 건과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의 확 인'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롯데홀딩스는 주총 직후 알림문을 내 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 및 컴플 라이어스(규범 준수) 경영을 보다 강화 하고 경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사사키 도모코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 다"고 전했다.

이번 주총은 지난달 28일 롯데홀딩스



이사에 오른 이후 처 음 열린 것으로, 신 회 장 지지를 표시했다 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주총에서 통과 된 두 가지 안건은 신 회장이 지난 11일 대

(對) 국민 사과 때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와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 과 연관된 것으로, 이번 주총 지지를 바탕 으로 관련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 이다. 신 회장이 공언한 대로 호텔 롯데 상장과 순환출자 고리 연내 80% 해소 직 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가전 양판점 전자랜드프라이스킹(대표 홍봉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 지점, 전 직원이 동참하는 광복절 기념 캠페인 을 진행했다.

광복 70주년 기념 이벤트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인 전자랜드프라 이스킹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주말 동안 전국 100여개 지점에 태극기를 게양 하는 것은 물론 TV브라운관, PC 모니터 에 태극기를 띄우는 등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매장을 연출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 직원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

필 이미지와 문구에 '광복 70주년 전자랜 드가 함께 합니다'를 설정해 전 직원이 광 복절을 뜻 깊게 보내는 데 함께했다.

LG 器 E 라 H D T T V

전자랜드 "냉장고 사면 中 역사여행"

전자랜드 직원들이 광복70주년을 맞아 매장에서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전자랜드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 지 점과 전자랜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뜻 깊 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자랜드는 이와 함께 '항일 역사여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8월 한 달 동안 전 자랜드 전국매장에서 냉장고 구매 고객 중 7명을 추첨하여 10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중국 항일 역사여행을 보 내 줄 예정이다. / 홍행기기자 redplane@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8.52 (-14.94)

▼ 금리 (국고채 3년) 1.72% (-0.01)

▼ 코스닥 722.01 (-9.35)

▲ 환율 (USD) 1183.10원 (+9.10)



